



고품질 진흥 발전 추진하는 연변은 지금...

초여름의 연변조선족자치주, 만물이 푸르싱싱하며 생기로 넘친다.

전 주 각지의 프로젝트 건설현장은 너도나도 분명한 기상들이다. 기업의 작업현장들에서는 전력을 다해 생산과 주문에 대비하고 문화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비약하며 빈번히 '철보'를 울린다...

신질생산력으로 에너지 부여하며 발전

습근평 총서기는 새시대 동북전면 진흥추진 좌담회에서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신질생산력을 다그쳐 형성하며 발전의 새로운 동력에너지로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새시대, 새 로징에서 동북 전면 진흥을 주동하는 데 방향을 밝혀냈다.

길림오동약업그룹 연길주식유한회사에서는 "총서기의 요구를 시달하여 인민대중들이 안전하고 믿음직한 약을 시름없고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급진한 붉은 깃발이 각별히 눈길을 끌고 있다.

2015년 7월 16일, 습근평 총서기는 길림오동약업그룹 연길주식유한회사에서 제품을 둘러보고 작업현장에 들어가 생산흐름을 료해하고 나서 생물제약의 최전방 동태를 따라가고 기술 연구 개발 협력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합량과 부가가치가 더욱 높은 제품을 힘써 생산하여 인류 질병의 난제를 공략하고 균중의 신체건강 축진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그들을 격려했다.

"총서기의 연설은 우리 모든 '오동 사람'들을 격려하고 편달하고 있습니다. 이 몇년간 우리는 자기의 눈동자를 아끼듯이 오동 브랜드를 아끼면서 시중 의약산업 고품질 발전에 있는 힘을 다했으며 의약 제조업 신질생산력의 발전 방향을 각별히 주목해왔는바 창조 혁신하며 연구개발인근 투입을 증가하고 특색 첨단과학기술 제품군을 풍부히 했습니다. 현재 141 개의

약품 승인 번호가 있고 30여개의 규범(品規) 제품은 신약 연구와 약품품질 일치성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여개 아이템은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게 소개하는 길림오동약업그룹 연길주식유한회사 품질부총경리 서봉려의 눈에서는 강인한 빛이 흘러넘쳤다.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새 활력 불러일으켜

"이곳에서 조선족의 전통 생활과 문화를 느껴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자매 9명은 팀을 무어 오게 되었습니다. 와보니 정말 헛걸음을 하지 않았습디다. 우리는 노래하고 춤추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여기저기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했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곳마다에서 사진을 찍어 워챗 모멘트에 올렸더니 친척들과 친구들 모두 서로 당장 떠나오라며 야단입니다." 호남성 헝양 시에서 왔다는 유람객 장흔열이 흥분해서 하는 말이다.

민속 풍도인정을 체험하며 무릉'도원'을 느껴보는 것이다. 중국조선족 민속원은 독특한 민속문화와 관광의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전국 각지의 유람객들이 사시장철 몰려오도록 하고 있다.

"수가인" 민족복식관에서는 아름다운 눈부신 민족복식이 유람객들의 발목을 잡는다. 유람객들은 너도나도 곱게 얼굴 화장을 하고 민족복장을 펼쳐 입고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에 분주하다.

맛있는 음식은 유람객의 침샘을 자극하고 유혹한다. '아리랑' 각루에서는 부동한 식재료와 각이한 조형의 쌀떡들이 불티 난다. 모두가 한입 베어 물고 맛을 보다가는 저도 몰래 입을 다스며 이 특유의 민족음식을 한껏 즐긴다.

"혁신이 있어야 새로운 생기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속풍정 전시와 문화 전시, 무형문화유산

체험, 특색 음식과 민속, 고풍스런 전통건축 등을 창조적으로 융합하고 조명쇼, 테마 워터쇼 등으로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유람객들은 낮에는 민속원을 돌면서 문화를 감상하고 저녁에는 골목들을 누비며 음식들을 맛보느라 즐거움 나머지 저마다 돌아갈뻔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매일 평균 6,000명가량의 관광객을 접대하고 있는데 이 수자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조선족민속원 투자유치기획 총감독 장진명의 말에는 기대감이 듬뿍 담겨있다.

민속원외에도 연변대학 왕홍벽, 공룡왕국, 수상시장, 둔화북정산문화관광구 등 모두가 전국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아보는 곳들이다.

지난 '5.1' 연휴 기간에 연변은 국내외 관광객을 연인수로 210만 7,200명 접대, 동기 대비 144.85%나 증가했다. 국내 관광 총수입은 18억 8,100만원으로 동기 대비 275.45%나 증가했다는바 두가지 지표 모두 전 성 앞자리를 차지했다.

2024년 연변은 관광 천억급 산업 공략 행동을 깊이있게 진행하고 있는바 새로운 프로젝트를 버팀목으로 하고 새로운 업태를 확장으로 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보장으로 하여 문화관광산업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지속적으로 불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

환경을 최적화하여 산업을 흥기

5월 22일 오후 4시, 둔화시장유시품유한회사의 전병 작업장에서는 한 대안대의 전병 번철과 스마트화 생산선이 끊임없이 돌아가며 로동자들이 숙련한 솜씨로 다루고 있는 가운데 신선한 전병이 구수한 맛을 풍기며 구워져나오고 있다.

"우리의 전병은 이미 동북을 벗어나 국내 많은 대도시들에서 널리 환영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 미국, 일본, 한국 등 12개 나라에까지 수출됩니다." 회사의 리사장 진장유가 기쁨

을 감추지 못하며 하는 말이다.

"기업의 주인으로서 나는 간부의 '수고(辛苦) 지수'로 기업의 '발전 지수'를 바꿀 수 있음에 더없이 따스함을 느낀다. 솔직히 기업의 발전은 현지의 각급 당위와 정부의 대폭적인 지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시 공업정보화국, 문화관광국 등에서는 우리를 도와 샘플실을 만들어주고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또한 참관 통로를 설계하도록 하였으며 우리를 인도하여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판매 경로를 넓히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가게 종업원'식 봉사는 우리의 신심을 가베로 증가시켰습니다. 현재 틱톡 플랫폼의 팬은 55만명이며 30여개의 제품 특화와 59개의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어 제품의 시장 판로가 아주 좋습니다." 현지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진장유는 손금 보듯 한다.

RCER 연변다국수출입센터가 연길에 정착한 후 연변 여러 부문은 주동적으로 비육한 성장 속도로 되어 발전의 동력에너지로 육성하며 기업에 심각한 인상을 남겨왔다.

연변은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2024년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중점행동방안>을 제정하고 기업이 지도기제를 개설하고 '기업 지체지 도봉사 설립' 건설을 혁신적으로 전개하며 프로젝트 보장 봉사를 강화하는 등 50가지 중점업무를 내오는 것을 통하여 연변의 비즈니스 환경의 전면적인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를 힘껏 추진했다.

연변다국수출입센터 전시청 경리양소금은 이렇게 직언했다. 다국수출입센터는 2021년 9월에 운영을 시작한 이래 연길시 당위와 정부의 정책적 지지를 받았다. 다국무역에 보조금을 내어주고 무역회사를 흡인해 협력하도록 했으며 투자유치를 도와왔다. 이곳의 비즈니스 환경에 점수를 매긴다면 만점을 줄 것이다. / 길림일보

전국 소년선봉대원 1억 1,480만 7,000명

전국소년선봉대사업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도합 1억 1,480만 7,000명의 소년선봉대원이 있다고 공청단중앙이 전했다.

전국적으로 도합 27만 6,000개의 기중 소년선봉대사업위원회가 있는데 그중 중소학교 소년선봉대사업위원회가 19만개, 향진(가두), 촌(사회구역) 소년선봉대사업위원회가 8만 3,000개, 청소년구 소년선봉대사업위원회가 3,000개이다.

전국 중소학교에는 도합 19만개의 소년선봉대 대대, 285만 6,000개의 중대가 있다. 전국적으로 도합 754만 2,000명의 소년선봉대 보도원이 있는데 그중 성, 시, 현급 소년선봉대 총보도원이 3,000명, 중소학교 대보도원이 21만 1,000명, 중대보도원이 287만 6,000명, 소년선봉대 교외보도원이 445만 2,000명이다. / 신화사

올해 전국 대학입시 수험생 1,342만명!



2024년 전국 대학입시 수험생수는 1,342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1만명이 증가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통일시행사업부 부문간 합동회의 구성원 단위와 함께 조기 연구판단, 조기 기획, 조기 포치를 하고 고품질 개발과 고수준 안전을 총괄하며 다양한 조치를 취해 각지에서 시험 조직과 수험생 봉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평안대학입시' 목표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첫째, 시험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안전과 평온함을 확보한다.

둘째, 시험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공평과 공정을 실현한다.

셋째, 수험생 봉사를 확실히 최적화하고 전력을 다해 따뜻하고 편안한 시험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선전과 인도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 인민넷 - 조문판

금융서비스와 과학기술형 기업의 매칭 효율 한층 더 향상

우리 성 2023년도 500강 우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선정

최근, 길림성 과학기술형 기업 고품질 발전 조력 대회가 장춘에서 소집되었다. 회의에서는 우리 성 2023년도 500강 우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순위를 발표했다. 길림성과학기술형중소기업 선정활동을 공동으로 기획 실시하였다. 선정활동은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능력, 영업수입 상황 등 방면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2023년도 전국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정보서비스 플랫폼에 입고된 4,515개 기업을 상대로 진행했다. 선정 과정에서 기업의 과학기술혁신능력, 재무영업수입 상황 등 면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길림성과학기술형중소기업과 과학기술형 기업의 정보 비대칭을 제거

하고 쌍방의 매칭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업은행, 길림은행, 동북제담보 및 성주주권기금회사 등 8개 금융기구와 연합하여 전 성 500강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선정활동을 공동으로 기획 실시하였다. 선정활동은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능력, 영업수입 상황 등 방면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2023년도 전국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정보서비스 플랫폼에 입고된 4,515개 기업을 상대로 진행했다. 선정 과정에서 기업의 과학기술혁신능력, 재무영업수입 상황 등 면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최근년간 우리 성은 과학기술 발전과 금융봉사의 심층적인 융합을 부단히 추진하여 선후로 '과학기술형혁신 창업 발전을 위한 금융서비스 능력 향상 행동', '기업 난관 완화 금융 신용대부금 제품 만개 기업 찾아가기' 등 일련의 조치를 실시하고 과학기술혁신 대부금, 납세 신용 대부금(銀稅貸), 판매경영 대부금(經銷貸) 등 과학기술형 기업의 특점에 부합되는 전속 금융 상품을 출시했으며 은행 신용대부금, 증권시장, 창업투자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체계를 조보적으로 구축하여

과학기술 발전과 금융서비스가 손잡고 새시대 길림 전면 진흥이 술선적으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데 새로운 동력에너지로 주입했다.

이번 회의는 길림성과학기술형중소기업성당위 금융판공실(성지방금융관리국), 인민은행 길림성분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길림감독관리국, 장춘신구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국공상은행 길림성분행과 중국은행 길림성분행 등 12개 금융기구가 참여했다. 금융기구와 과학기술형 기업 대표들이 교류발언을 했다. / 길림일보

반로생, 연변의 민속문화와 민간수공예 전승 보호 개발 조사연구

5월 30일, 중국문화예술계연합회 부주석이며 중국민간문화예술계중심 예술총감독인 반로생(潘魯生)이 민속문화와 민간수공예의 전승, 보호, 개발 등의 사업 정황과 관련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방문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김기덕, 주문학예술계연합회 당조 서기이며 주석인 최홍녀가 조사연구에 동행했다.

반로생 일행은 먼저 중국조선족민속원에 도착하여 조선족 수공예 도자기 제작, 조선족 전통복식, 조선족 전통건축 등을 자세히 둘러보고 조선족 궁정떡체험관에서 조선족 궁정떡을 맛보았다. 그 뒤 반로생은 '아름다운 공방' 조선족 문화창작 예술공간을 방문해 조선족 전통 수공예품 제작 과정을 자세히 둘러보았다. '아름다운 공방'이 민족 무형문화유산 공예 기술을 전승하고 수공예 제작 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장애인성들의 취업 및 소득 증대를 이룩하도록 돕는 공익성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료해한 후 반로생은 수공예품을 통해 장애인성들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했다. 이어 반로생은 국가 지정 민족용품 생산기업이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생산성 보호시범기지인 연길시 민족약기연구소에서 조선족 전통약기 연주를 직접 관람하고 체험했으며 문화 전승인들과 소통하며 조선

족 전통약기의 설계 및 제작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반로생은 또 연변 예진수공날업(養禛手工扎染) 작업실을 방문하여 연변의 장인 황수금을 만나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며 염색공예 제작 과정, 발전 역사 그리고 전승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반로생은 조사연구 과정에서 연변의 민간예술기술 보존 및 전승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변은 중국의 유일한 조선족 자치주이고 가장 큰 유산적 집거지이다. 계속해서 민속문화의 보호와 전승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민간예술의 전통기술을 그대로 이어받아 문화의 뿌리를 지키며 무형문화유산의 령혼을 이어받아야 한다. 민간 전통문화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발굴하고 실용성과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발산해야 한다. 민속문화와 관광산업의 새로운 융합점을 깊이 파고들고 문화로 관광을 만들고 관광으로 문화를 빛내며 민속문화로 관광 내용을 풍부히 하고 관광을 통해 민속문화의 전파와 번영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예술인들은 전통기술을 이어받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발전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창작공간을 부단히 열어 현대 젊은이들의 미적 추구를 부단히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 연변조선족자치주문학예술계연합회



장백현 금화향에서는 자체 자원우세에 립각하고 하우스재배기지에 의탁하여 농업관광, 건강양생, 채취관광 등 농업관광의 융합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역내외의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농촌생활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강촌과 부민의 '윈윈'을 실현했다. 사진은 관광객들이 앵두를 따는 장면이다. / 길림일보